

# <가문장아기>를 통해 본 한국 무속신화의 세계적 소통 가능성 고찰

이원영\*

## <목 차>

1. 서론
2. <가문장아기>의 세계적 소통 지점
3. <가문장아기>의 변용서사에 대한 문학적 평가
4. 결론

## 1. 서론

한류 현상을 거론할 때는 흔히 해외에서 유행하는 한국의 드라마나 K-Pop 문화를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이러한 한류 문화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촉발시켜 한국 여행이나 한국어 공부 등의 2차 한류 현상으로 확장되고도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 문학의 범주에서는 이렇다 할 발군의 대표작품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나 고전소설이나 설화 작품의 경우, 원전에서부터 현대적 변용에 이르기까지 한류 문화 현상이라고 지칭할만한 성공 사례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드라마나 K-Pop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비록 소소하지만, 한국 문학의 세계적 소통에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으로 연극 <가문장아기>를 조명한다.

연극 <가문장아기>는 고순덕 작, 남인우 연출의 작품으로 70분 정도

---

\* 건국대학교 강사

상연하는 아동청소년극이다. 내용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제주도 무속신화 <삼공본풀이>의 주인공 가문장아기의 서사를 작가와 극단의 시각에 따라 재해석 하였다. <가문장아기>는 작가 고순덕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졸업작이며, 이후 극단 북새통의 대표작이 되었다.<sup>1)</sup>

<가문장아기>는 국내의 많은 공연을 거치며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청소년극으로 소개되어 왔다. 그 연보를 살펴보면 2003년 10월에 초연하여 2004년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및 아시아아동청소년연극제에서 공식초청작으로 공연되었으며, 같은 해 제13회 서울어린이연극상에서 우수작품상, 극본상, 연기상을 수상하였다.<sup>2)</sup> 이후 국내 공연은 물론이고, 일본, 독일, 루마니아, 러시아, 호주, 아프리카,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멕시코 등 세계 각국 공연 축제의 초청작이 되어 널리 공연되었다.<sup>3)</sup> 그

- 1) 극단 북새통은 어린이청소년연극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 집단으로 <가문장아기>를 비롯하여 <제주많은 다섯친구>, <달도달도밭다> 등의 작품에서도 한국의 구전설화를 변용하여 다문화와 통일문제 등을 다루었다. 한편 <가문장아기>작품의 창작·공연화 과정은 작가 고순덕의 논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깊이 참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극단 북새통 <http://www.playbst.com>; 고순덕, 「아동극에서 제주무속신화의 희곡화 과정 연구 : '가문장아기'의 여성의 몸에 대한 주제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MFA) 과정: 연극원 연기와 아동청소년극전공, 2004.
- 2) 서울어린이연극상은 1992년 시작된 국내 유일의 아동극 전문의 시상제도로, 심사의 기준은 작품완성도(극본 및 연출, 연기 등 연극의 전반적인 우수성 평가, 배점 40점), 예술성(연극을 통해 발산하는 예술성 평가, 배점 25점), 참신성 및 창의성(독창적 아이디어 및 새로운 시도 검토, 배점 25점), 놀이성(놀이 문화로서의 역할 평가, 배점 10점)이다. 2004년 당시의 심사위원장은 김미도, 심사위원은 이병훈, 최영애, 김승현이다. -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아시테지 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http://assitejkorea.org>
- 3) 2003: 서울 및 강화 지역 복지시설 순회공연, 초연/2004: '여성연극제(젠더크리에이티브)' 공식참가작/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공식초청작/2005: 일본 오키나와 International Festival OKINAWA for Young Audience-Kijimuna Festa 초청작/2006: 독일 슈투트가르트 Internationales Kinder und Jugend theater festival-Schöne Aussicht 초청작/2007: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for Children-"100,1000,1000000"stories 초청작, Best Actor상/ 일본 오사카 International Festival for Young Audience-Takotan Festa 초청작/ 러시아 노브고로드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Kingsfestival 초청작/ 한국 거창 국제연극제 초청작/2008: 호주 아들레이드 제16회 ASSITEJ World Congress 공식 초청작/ 일본 오사카 초등

중 슈투트가르트와 카메룬 축제에서는 아시아 극단 중 최초로 초청받은 공연이었고, 러시아 축제에서는 천년의 역사 동안 두 번째로 참여한 아시아권 극단 공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아동청소년 연극 총회로서 3년에 1번 개최하는 세계 아시테지 호주총회가 전 세계 작품들 중 15개만을 선별하여 구성하는 공연프로그램의 공식 초청작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영미-유럽권 극단의 굳건한 수세 속에서도 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세계적 무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가문장아기〉가 이룬 특중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국내 공연의 경우 2003년 초연 된 후 꾸준히 공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2014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연극부분의 선정작이 되어 탄생 10주년 기념 앙코르 공연과 대학로에서의 연장공연까지 마쳤다.<sup>4)</sup> 화려하지 않은 소극장용 아동청소년 연극이 이렇듯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공연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는 아직 흔치 않은 사례이다. 한편 〈가문장아기〉는 대사 속에서 제주 방언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다수 관객들에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지역 언어이다. 게다가 해외 공연에서는 언어장벽으로 보다 극심한 내용 전달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무대에서 수차례 공연되어 온 것은 작품에 대한 공연계 및 전문가의 관심과 평가를 반증하며, 관객들의 호의적인 공연감상 태도도 함께 짐작하게 한다.

〈가문장아기〉의 바탕이 되는 제주도 무가 〈삼공본풀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기왕의 연구사적 흐름을 간단히 간추리자면 먼저 ‘내복에 산다’ 유형의 설화와 내용의 구조적 동질성에 입각하여 두 유형을 비교하고 작품의 형성과정

---

학교, 중학교 순회공연/ 카메룬 야운데 Thea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frican-Fatej Festival 초청작/2009: 오스트리아 린츠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SCHÄXPIR 초청작/2010: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Naj, naj, naj festival 초청작/ 카메룬 야운데 Thea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frican-Fatej festival 초청작/2011: 멕시코 Programa de Teatro para Niños y Jóvenes 초청작개막작.

4) 2014.04.25-05.04.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2014.10.01-10.19. 서울 대학로 나온씨어터.

및 유래관계 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구조 분석에 기초하여 제주도 서사무가 <삼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와 전승집단의 의식을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어서는 이밖에 비슷한 주제를 가진 서양의 <리어왕>과 비교문학적 연구도 이루어졌고, 작품 속 여성의식과 다문화적 성격에 대해서도 논의가 된 바 있다. 이렇듯 앞선 일군의 연구사에서 이루어진 작품의 의미 분석은 주로 ‘쫓겨나는 딸’이라는 인물형을 주목하여 주체적인 자아의식과 성장, 여성의 입사담 및 영웅 신화적 특성을 거듭 조명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5)</sup>

<가문장아기>의 작가 고순덕은 오늘날 시대정신에 맞는 <삼공본풀이> 재해석의 접점을 ‘가문장아기의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sup>6)</sup>으로 잡았다. 이

- 5) 황인덕, 「<내복에 먹고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제18집,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88.
- 현승환, 『「내 복에 산다」系 說話 研究』,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윤교임, 『여성영웅신화연구: 초공본풀이·삼공본풀이·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영숙, 「삼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44권, 한국언어문학회, 2000.
-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김미숙,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 '집'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7.
- 이인경, 「<가문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제2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 장영란, 「한국 여성-영웅 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 - ‘딸’의 원형적 이미지 분석과 ‘효’ 이데올로기 비판」, 『한국여성철학』 제9권, 한국여성철학회, 2008.
- 박영선, 「민담 <내 복에 산다>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心性研究』 제25권 2호, 한국분석심리학회, 2010.
- 신연우, 「여성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권,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 안효정,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권복순, 「<가문장아기>와 <자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배달말』 제51권, 배달말학회, 2012.
- 김신정, 「무속신화와 여성의 몸」, 『여성문학연구』 제27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는 작가의 페미니즘적 시각과 ‘주체적인 여성영웅신화’로 〈삼공본풀이〉를 해석해 온 국문학계의 연구흐름이 반영된 결과물이다.<sup>7)</sup> 여기에 아동·여성·지역·노동·공동체의식 등의 의미를 더하여 작품을 통해 신화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sup>8)</sup>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의 주조를 기반으로 하여 〈삼공본풀이〉의 원형 서사와 〈가문장아기〉의 변용서사의 양상을 빚대어 살펴보고, 창작 과정 속에서 소거되거나 확장된 주제 의미를 찾아 문학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가문장아기〉를 통해 〈삼공본풀이〉를 비롯한 한국 무속신화의 세계적 소통 가능성과 잠재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가문장아기〉의 세계적 소통 지점

〈가문장아기〉가 세계적 소통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점은 여러 기사와 평가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아래에 인용된 기사문을 참조하면 〈가문장아기〉 해외 공연에서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해외 어린이도 스토리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까닭으로 현지 공연을 지켜본 기자는 영어 대사나 호주 민요를 사용하여 관객의 이해와 참여를 도운 것보다 작품 내용의 묘사와 연기가 관객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 덕분이라고 부연하였다.

---

6) 고순덕, 앞의 논문, 19면.

7) “삼공본풀이에서 신화적 의미를 찾아가는 핵심은, 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가에 있다.” 고순덕, 위의 논문, 23쪽.

8) 이밖에 〈가문장아기〉의 배우 김소리의 논문과 김성희의 평론도 부분적으로 참조가 가능하다. 김소리, 「아동극에서 배우와 관객의 상호작용 연구 : 관객의 능동적 반응을 수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MFA) 과정: 연극원 연기과 아동청소년극전공, 2011;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연극과 대화하기』-「전통 설화의 여성주의적 해석과 신명나는 놀이판-극단복세통의 〈가문장아기〉」, 연극과인간, 2007.(김성희, 『한국연극과 일상의 미학: 김성희 연극평론집』, 연극과인간, 2009. 재수록. 이후 재수록본 참조.)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애들레이드예술센터 무대에 다섯 차례 올려진 '가  
문장 아기'(고순덕 작·남인우 연출)는 공연 때마다 적지 않은 관객들이 기  
립박수를 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관객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약간의 영어대사를 쓰거나 초반에 호주인들의 애창민요 '월칭 마틸다  
(Waltzing Matilda)'를 해금으로 연주한 덕분만은 아니다. 관객들에게 돌린 감  
사제 떡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셋째딸 가문장 아기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낸 후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돌밭을 일궈내 쌀풍년을 이룬 과정에 대한  
묘사와 연기가 관객들 사이에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 덕이다.

"제 아들 다아시는 여덟 살이에요. 한국말을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 애가 '  
가문장 아기'를 보고는 스토리를 다 이해하고 연극을 즐기는 걸 보고 놀랐  
어요." 애들레이드 아시테지축제의 제이슨 크로스 예술감독이 하는 칭찬의  
말이다.

'가문장 아기'의 남인우 연출은 다섯 번의 공연을 모두 마친 후 "처음에 언  
어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  
인 관객들이 '가문장 아기'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는 것 같았고 한국의 옛날  
이야기가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었는지 매우 흥미로워했어요"라고 말했다.

"언어가 문제 될 게 없죠. 정말 멋진 연극이었어요." 아시테지축제를 참관하  
기 위해 미국 애리조나주 템프에서 온 애리조나주립대 로저 베다드 교수의  
말이다." 9

이밖에도 <가문장아기>를 본 해외 관객 및 언론의 반응도 칭찬이 일  
색이다. 한 예로 자그레브 축제 공연이 끝나자 한국교포와 현지 외국인  
들은 작품에 대해 호평을 하였고, 극단 배우들은 크로아티아 방송국들과  
인터뷰를 하고, 자그레브 시장의 초청을 받기도 하였다.



9) 연합뉴스 기사, 작성:강일중 기자, 검색일자:2014.07.28

<http://www.yonhapnews.co.kr/local/0899000000.html?cid=MYH20080521002100355&from=search>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공연 관객 모습과 크로아티아 방송국과 인터뷰사진<sup>10)</sup>〉

그밖의 외국 언론에서도 〈가문장아기〉를 호평 일색으로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박하고 꾸밈없는 공연이었지만 힘과 생명력이 넘치는 작품이었다. 또한 배우-무용수-가수-악사들의 육체 전체를 이용하도록 하는 이 작품은 '총체' 극 이상의 완전한 공연이었다. 배우들은 공연장의 3면을 둘러싸고 있는 관객들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그들과 나란히 호흡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Comedia Dell' arte 배우들처럼 넘치는 생명력으로 흥겹게 육체적으로 텍스트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신체적 태도는 아를르깡에 가까웠다. - Patrice Pavis, 파리 8대학 교수

관객도 참가, 일체감 연출, 한국 극단 북새통의 〈가문장아기〉는 관객을 끌어 당겼다. 효과음과 음악 등으로 공연장을 휘어감아 일체감을 연출했을 뿐 아니라, 작은 떡도 나누어 주어 즐거웠다. - 2005년 7월 일본 오키나와 일본

〈가문장아기〉는 모두를 매혹시킨다. 연극적 매체가 이토록 완성된 조화를 이루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한 소녀가 자신을 찾아가는 오디세이를 이야기하면서, 네 명의 젊은 배우들이 비밀의 아우라를 창조해내는 과정, 그것에서의 음악성과 연극성은 매혹적이다. 배우들은 가면, 북, 현악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작품을 지배한다. 그들은 노래와 세밀한 판토마임으로 마술과 같은 신비스러운 세계를 불러온다. - 2006년 5월 독일 슈투트가르트 신문" <sup>11)</sup>

이로 볼 때 〈가문장아기〉는 한국 전통의 민속 문화라는 다소 이질적인 표현방식으로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단순한 구도의 내용을 공

10) 뉴스컬처 기사, 「연극 [가문장아기] 크로아티아까지 진출」, 작성:송현지 기자, 검색일자:2014.07.28. [http://www.newsculture.tv/sub\\_read.html?uid=16483](http://www.newsculture.tv/sub_read.html?uid=16483)

11) 이상의 번역문 〈극단 북새통 2011년 연차보고서〉 16면 참조.  
[http://www.playbst.com/default/img/bst\\_annualreport/2011/2011PlayBST\\_annualreport.pdf](http://www.playbst.com/default/img/bst_annualreport/2011/2011PlayBST_annualreport.pdf)

연하여 해외 관객들과 쉽게 소통하였다고 보인다. 나아가 작품을 향한 낯선 흥미가 부모와 자식과의 갈등, 주인공의 모험과 역경, 고진감래 등의 익숙한 주제적 공감으로 이어지며 관객으로 하여금 적극적·긍정적인 반응 효과를 낳았다. 거시적으로 보면 전반부 ‘쫓겨난 셋째딸’의 서사는 리어왕과 비슷하고, 중반부의 시련은 여타 영웅모험담과 닮아있으며, 결말은 권선징악형 보편적 해피엔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특수한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관심의 환기가 보편적인 주제의식으로 이어지면서 관중들의 지금, 여기의 현재적 이야기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아래에 제시된 글은 2008년 호주 아시테지 공연축제에서 <가문장아기>를 본 후 소감을 적은 해외 관객의 리뷰 일부이다.

The international program, like many of the events in ASSITEJ back in 1987, favoured traditional forms - but of a cautious and conventional kind. Gamoongjang Baby, from Play BST Korea, proved a rambunctious exception. Based on legends from the Jeju Island region, the brave heroine of the title, accompanied by tumultuous music and challenged by players using strange, earthy, grumpy looking masks, endures many travails before creating a golden harvest which is shared with the audience in the form of rice cakes. In its epic mix of shamanism, adventure and agrarian rite, Gamoongjang Baby provided theatre that was both fascinating and fun.<sup>12)</sup>

글쓴이는 먼저 <가문장아기>가 제주도의 용감한 여성 영웅 전설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는 아마도 예약정보에 공개된 작품 소개문이나 공연 당시의 설명에 힘입은 것이라 추정된다. 그리고 떠들썩한 음악과 이상하고도 심술궂은 모양의 소박한 탈을 쓰고 연기한 배우들의 시도를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이어 황금빛의 풍작을 이루기까지 주인공이 많은 고난을 견딘 부분과 그 노력의 소산인 쌀떡을 관중과 나누어

12) <http://murraybramwell.com/?p=480> 인용. 검색일자:2014.07.28.

- ASSITEJ 2008 Performing Arts Festival for Young People, May 9-18. Reviewed by Murray Bramwell, *Tradition mixed with innovation* The Adelaide Review, No.340, June, 2008, p.28.



먹었던 것을 인상적 기억으로 남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사머니즘, 모험, 농경제의 내용이 혼합된 서사를 통해 〈가문장아기〉 공연이 매력과 재미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가문장아기〉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 기준은 제주 여성 영웅 전설-고난-모험-달성으로 이어지는 서사적 축과 황금빛의 풍작-소산인 쌀떡-농경제의-사머니즘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부분, 그리고 개성적인 음악소품 사용에 대한 공연 음향 및 미술적 만족 부분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여성영웅서사의 복잡하지 않은 구조와 서양인들에게 낯선 아시아-한국-제주의 고유한 문화적 지역성이 오히려 수용자이자 소비자인 해외 관객들에게 큰 호소력을 발한 것이다.

국내 평론가 김성희는 〈가문장아기〉의 특성이 제주 전통설화의 현대적 해석과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여성주의적 인물상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작품이 지역성을 넘어 보편성을 획득하고,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1인 다역의 역할 배역과 마당극 스타일의 구성, 광대와 악사를 활용하는 놀이성을 거론하였다.<sup>13)</sup> 이 또한 연극 공연에서의 연기와 무대 연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외의 소통 지점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가문장아기〉는 내용 전달에 적합한 연기와 묘사, 무대 구성 및 연출을 통해 한국의 지역·전통 문화를 세계적으로 소통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연극을 구성하는 표현 기술 및 방법의 일환으로 작품의 외형적 측면에 해당한다. 한국의 대표적 여성영웅 신화를 소개한다는 포부로 〈가문장아기〉를 해외 무대에서 공연했음을 상고한다면, 그 의도가 작품각색에 잘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응당 필요하다. 이에 내용적 측면에서의 서사적 재편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두고 〈가문장아기〉변용서사를 서사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13) “〈가문장 아기〉 공연의 특성은 제주도 전통설화의 현대적 해석, 즉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현대적 여성상을 그려낸 여성주의 가족극이라는 점이다. 극 중 배역의 압축과 역할변신, 마당극 스타일의 구성, 광대나 악사들이 맘껏 뛰 놀 수 있게 만든 장면화와 다양한 연극성의 놀이가 지역성을 뛰어넘는 보편성, 세계성을 부여한다. 러시아, 독일, 일본 등지에서 호평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김성희, 앞의 책, 607~608면.

### 3. <가문장아기>의 변용서사에 대한 문학적 평가

고순덕의 2004년 졸업논문에는 수정 완료된 <가문장아기> 텍스트가 총 아홉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4)</sup> 여기서는 일곱째 마당으로 ‘거지부부의 몰락’ 장면과 아홉째 마당에 거지부부의 개안 장면이 첨가되어 있었으나, 이후 2010년에 출간한 희곡집의 마당구성에 따르면 총 여덟 마당<sup>15)</sup>으로 위 두 장면이 삭제되어 있다. 필자가 2008년 이후 세 번의 관람을 한 바 공연내용이 2010년 발행본과 거의 동일하므로, 이후 논의에

14) 고순덕, 앞의 논문, 91면.

삼공본풀이 <가문장아기>	희곡 <가문장아기>
1. 강이영성이서불과 홍은소천궁에궁전궁납 두 거지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	앞풀이. 거리의 약사들 마당 첫째 마당. 거지부부가 자식들을 낳다
2. 은장아기, 늦장아기, 가문장아기를 낳고 부자가 된다.	둘째 마당. 가문장아기가 집에서 쫓겨나다
3. 십오 세에 이르자 딸들은 효시험을 받게 되는데, 가문장아기는 불효죄로 쫓겨난다.	셋째 마당. 가문장아기의 험난한 여정 넷째 마당. 깊은 산 마퉁이네 집
4. 거짓말을 한 언니들은 가문장아기의 주문에 의해 각각 청지네와 버섯으로 환생하게 되고, 부모는 안맹하고 거지가 된다.	다섯째 마당. 막내 마퉁이와 가문장아기가 부부가 되다 여섯째 마당. 형님들의 팔세로 멀리 쫓겨나다
5. 가문장아기는 굴미굴산 비조리 초막 할망 하르방의 세 아들 중 막내 아들과 혼인한다.	일곱째 마당. 약사 놀이-거지 부부의 몰락
6. 마과는 곳에서 금을 발견하여 잘 살게 된다.	여덟째 마당. 가문장 아기, 농사를 짓다
7. 거지 잔치를 베풀어 부모를 만나고, 부모는 득명한다.	아홉째 마당. 가문장 아기가 하늘에 감사제를 지내다

15) 앞풀이. 거리의 약사들 마당  
 첫째 마당. 거지 부부가 자식들을 낳다  
 둘째 마당. 부자가 된 거지부부, 딸들의 효를 테스트 하고 가문장아기를 쫓아내다  
 셋째 마당. 가문장아기의 험난한 여정  
 넷째 마당. 깊은 산 마퉁이네 집  
 다섯째 마당. 막내 마퉁이와 가문장아기가 부부가 되다  
 여섯째 마당. 형님들의 팔세로 멀리 쫓겨나다  
 일곱째 마당. 가문장아기, 농사를 짓다  
 여덟째 마당. 가문장아기가 하늘에 감사제를 지내다  
 고순덕 외, 『아시테지 창작희곡선2 가문장아기』, 도서출판 예감, 2010, 9~55면.

서는 이를 토대로 논의한다.

### 3.1. 안맹(眼盲)과 개안(開眼)화소의 유무

앞서 지적하였듯 <삼공본풀이>와 <가문장아기>의 내용이 가장 다른 부분은 거지부부의 몰락과 안맹(眼盲)과 관련된 부분이다. <삼공본풀이>의 부모는 셋째딸을 쫓아낸 후 안맹하여 거지가 되고, 가문장아기는 막내 마통이의 마밭에서 은금을 찾아 부자가 된다. 이에 거지잔치를 열어 찾아온 부모를 접대하며 자신이 쫓겨난 막내딸임을 고백하자 부모가 놀라 개안(開眼)하게 된다. 그러나 <가문장아기> 공연에서는 부모의 안맹 및 가산탕진으로 인한 거지부부로의 회귀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결말에서도 개안의 장면이 드러나지 않는다. 아예 새로운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마통이네 집에서 쫓겨난 가문장아기와 막내 마통이가 돌밭을 일구어 벼농사를 짓고 감사제를 올리는 것으로 변형되었다. 이렇듯 <삼공본풀이>에서 자식을 내쫓은 부모와 쫓겨난 딸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시 된다면, <가문장아기>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두 남녀가 벼농사를 일구어 풍작을 주변과 나누는 과업의 달성이 강조된다.

앞선 연구사를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가진 “내복에 산다”형 설화와 <삼공본풀이>가 다른 서사적 부분은 부모의 안맹(眼盲)과 개안(開眼), 거지잔치 장면이 해당하고, 거지부부로 상정된 것 또한 신의 내력담을 설명하는 본풀이로서의 성격과 형식에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이미 논의된 바가 있다.<sup>16)</sup> 이에 비추어 보면 연극<가문장아기>는 <삼공본풀이>만의 특장의 내용이 상실되면서 신화적 성격에서 민담적 성격의 서사로, ‘내 복에 산다’ 형 서사로 변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로부터 개안은 천부적 질병, 장애로 여겨졌던 안맹이 치유되는 기적적 상황이기에 주로 질병을 구제하고, 수명과 장수, 복덕과 길흉을 관장하는 신력과 관계되어 왔다. 또 그것은 대부분의 구복신앙 그 자체로, 수호 대상이자 목적이기도 하다.<sup>17)</sup> 이로 볼 때 <삼공본풀이> 신화 속 가

16) 황인덕, 앞의 논문, 121~122면.

17) 우리나라의 장님굿, 맹인거리는 황해도의 도산말명 방아찼이나 서울경기지방

문장아기가 부모의 안맹과 개안과 관련하여 전상신이 되는 과정은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장아기>는 그 부분이 마술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점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환경을 개척하는 현실적인 의미로 해석하고자 소거하여 서사의 본래적 신화성이 약화되고 있다.<sup>18)</sup>

### 3.2. 부모/자매/형제 갈등의 형상화

부녀간 대립으로 시작되는 작품의 주제적 갈등 국면은 <삼공본풀이>에서는 안맹과 개안 화소를 통해 전개되어 가면서 주인공인 가문장아기의 능력을 부가시키고, 부모-자식간 소유와 독립의 문제점을 회복과 치유의 해결점으로 구성한다.<sup>19)</sup> 이에 반해 <가문장아기>에서는 문제의 시발점인 부모와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 단지 말미에서 추수감사제를 올리는 가문장아기의 대사를 통해 초대의 권유 정도로만 그치고 있다.

가문장아기 아방님아 어명님아 막내들이 직접 지은 밥 드시러 오십서.  
막내마통이 성님 성님들도 풀풀 마음풀엉 혼저 오십서.<sup>20)</sup>

의 뒷전, 남부지방의 거리굿, 동해안별신굿의 심청굿 등 전국적인 굿 제의절차 속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장님굿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맹인의 눈을 먹고, 눈을 뜨게 하고, 한을 풀게 하는 놀이화된 부분과 점을 치고 복을 주는 종교적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장님굿' 항목 참조. 검색일자:2014.07.2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8168&categoryId=1627>

- 18) 고순덕은 앞의 논문 30쪽에서 결말 부분, 안맹한 거지부부의 개안 장면에 대하여 기존의 가치가 개선되고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으로 평가하는 입장에 동조하였다. 또 100쪽에서는 개안에 대해 새로운 인식의 눈을 뜨게 되는 신화적 정신, 치유적 성격 등을 거론하며 의미를 부연하였다. 그러나 최종 공연텍스트에서는 소거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상태이다.
- 19) '내 복에 산다'형 설화에서도 부녀갈등이 주로 나타나는데 셋째딸 집 대문이 여단을 때 마다 셋째딸 이름과 같은 소리가 나는 덕분에 거지가 된 부모와 상봉하게 된다.
- 20) 고순덕 외, 앞의 책, 50면.

그러는 한편 은장아기와 늦장아기의 방해 장면과 마통이 형제간 갈등 장면은 확장하면서 “쫓겨난 딸”이라는 부모-자식간 갈등만큼 형제자매간 갈등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여기서 가문장아기와 부모/언니/마통이형제간 갈등의 원인은 여성의 주체적 태도를 인정하지 않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 때문이라 하였다.<sup>21)</sup> ‘내 복에 산다’ 형에서는 자매나 형제 관련 서사가 제시되지 않으며 <삼공본풀이>에서는 가문장아기가 직접 진언으로 징벌을 내려 두 언니를 청지네와 용달버섯으로 변신시킨다.

가문장아기 말을 하되,

“설은 큰성님 뽕팡돌 알로 느려사건 청주녕이 몸으로나 환싱(還生)흡서.”

설은 성님 뽕팡돌 알레레 느려사난 청주녕이 몸으로 환싱허여간다.(중략)

가문장아기 말을 하되,

“설은 셋성이랑 걸름 알레레 느려사건 용달버섯 몸으로나 환싱흡서.”

설은 셋성 걸름 알레레 느려사난 용달버섯 몸으로 환싱(還生)허여 간다.<sup>22)</sup>

<삼공본풀이>에서는 가문장아기가 말하는 대로 두 언니의 형태가 바뀐다. 일종의 주술적 변신 능력인데, <가문장아기>에서는 이 요소를 소거하여 두 언니가 스스로 변신하게 된다. 이로 인해 관계와 사건 변화의 주체자이며, 운명신으로서의 직접 능력을 행사하는 가문장아기의 신화적 의미가 약화되었다. 권선징악의 심판자이자 행위자로서, 방해자를 직접 징치함을 통해 비범한 영웅성과 신적 존재로의 거듭남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런데 <가문장아기>에서는 보다 착한 여동생의 면모만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문장아기를 형상화 하고 있다.

악사2 (몸을 비틀대며) 입 다물라! 부모 앞이선 지네처럼 말 없이 기어뎡기는 거여! 겐디 갑자기 평!(지네 모습) (중략) (늦장아기 흉내를 내며) 눈 내리갈라! 부모 그늘에선 버섯처럼 얌전하게 자라는 거여! 평!(한 자 한 자 힘주어서 으스스하게) 독 버섯!

21) 고순덕, 앞의 논문, 55면.

22) 현용준·현승환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제주도 무가』 2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96~99면.

약사2 가문장아가기 하도 마음이 아팠 손을 내밀어신디 청지네고 독버섯  
이고 독을 뽀내멍 사라져버립디다.<sup>23)</sup>

<삼공본풀이>에서 더럽고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두 형의 밭과 금덩이가 발견되는 막내마통이의 밭은 대조를 이룬다. <가문장아가기>에서는 이 대신에 밭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두 형의 적대적 태도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마통이 형제와 가문장아가기 사이의 갈등국면을 보다 확대심화시켜 대립-독립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큰 마통이 혼자 멀리 사라져볼라! (중략)  
가문장아가기 (멈춰서며) 가도 우리 발로 갑네다! (마통이를 잡아끈다) 떠나게  
마슴!<sup>24)</sup>

가문장아가기는 마통이 형제에게 쫓겨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나가는 것이라 선언하고 두번째 떠남의 길을 선택한다. 즉 가문장아가기와 마통이는 온전히 기존의 가족원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성인으로서 한 가정의 주체가 되고, 노동을 통해 운명을 개척하는 인간성을 보여준다.

### 3.3. 치부담에서의 황금발견과 황금들판의 차이

<가문장아가기>에서 대풍을 이룬 황금 들판은 <삼공본풀이>의 마통이의 마 밭에서 찾은 금덩이의 이미지에 대응된다. 누런 황금색의 시각적 표상성은 유지되나 일확천금의 발견에서 노동의 대가로 의미가 변화되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일확천금은 기회주의적인 우연성에 기대하는 설화의 낙관적 해결방식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삼공본풀이> 전체의 맥락에서 득금(得金) 부분의 이면을 살펴보면 가문장아가기의 발복 능력과 적극적인 탐색 태도가 연결된다. 비루한 현실에서도 자신이 타고난 복덕을 믿고 자기 삶의 가능성과 주변 환경에 숨겨진 기회를 찾은 결과, 풍요로움을

23) 고순덕 외, 앞의 책, 25~26면.

24) 위의 책, 42면.

얻은 것이다. 즉 자신의 삶은 스스로의 덕으로 이루는 것이라 믿는 자기 주체성의 긍정적 의미와 함께 전상을 차지한 신으로서의 복덕(福德)의 능력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여기서 전상이란 불전계 설화와의 관련성과 발음상의 유사성으로 전생(前生)으로 해석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 상권에 수록된 한생소 구연본에서 ‘인간살이 모든 일이 다 전상<sup>25)</sup>’이라 했던 언급을 고려하여 인생전반을 운영하는 팔자와 운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인 해석이다.<sup>26)</sup> 그렇기에 <삼공본풀이>의 가문장아기는 인간살이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뜻대로 관장할 수 있는 능력자이며, 주어진 운명에 도전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주체적 의지의 상징이다.

그런데 연극 <가문장아기>에서는 막내딸의 발복 능력을 근면성실의 노력과 연관 짓고, 득금(得金)을 벼농사로 치환하여 과정을 현실적·주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또 부모와의 분리 문제에서도 가문장아기를 ‘거부’의 주체자보다는 ‘쫓겨남’의 피해자로서 인식하게 하여 인과관계 보다는 문제 상황의 극복에 초점을 두었다. 부모자식간 종속과 독립이라는 오래된 화두는 비록 약화되었지만, 스스로의 독립보다는 ‘원치 않는 쫓겨남’ 쪽으로 해석함으로써 어린 딸이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에 정서적인 연민과 애정을 가지게끔 하는 감정이입의 효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비교적 극단적인 작품 주제가 낱을 수 있는 수용자의 반감이나 곡해의 어려움을 상쇄시키고, 관객들이 보다 쉽게 작중 인물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25) ““전상은 어떤 것이냐?”하니 “전상은 다름이 아니오라, 인간 세상 장사하는 것도 전상이요, 목수일도 전상이요, 농사 짓는 것도 전상이고, 술 먹는 것도 전상이요, 담배 먹는 것도 전상이요, 노름 하는 것도 전상이요, 밥 먹는 것도 전상이요, 인간살이 모든 일이 전상입니다.” 하였다.” 서대석,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4, 307면.

26) “가문장아기는 사람들의 행위와 마음에 따라 전상을 달리 내림으로써 선과 효를 강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즉, 타인의 전상, 운명을 관장하는 전상신으로서의 역할이 드러난다. (중략) 가문장아기가 제시하는 전상의 본질적인 의미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와 지혜이다.” 안효정,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54면.

약사1 가문장아기가 복덩어리여. 가문장아기가 쑥쑥 자라나난, 요 거지부  
부 재산도 쑥쑥 자람시네.

약사2 이야- 가문장아기 열 다섯에 거지부부 진짜 폼나게 살았제!27)

반면 복덩어리인 막내딸을 낳고 난 뒤로 부자가 되었다는 대사가 있음에도 주인공 가문장아기는 전상의 여신이 아닌 인간적 존재로 한정됨을 알 수 있다. 즉 <삼공본풀이>의 전상신인 가문장아기는 남편과 함께 노력하여 이룬 대풍년에 감사제를 올리는 인간 여성에 국한된다.

가문장아기 혼자 추수감사제 준비하게 마슴.

막내 마통이 (힘찬 소리로) 다들 곧밥 먹으레 오십서! 우리집이서 감사제  
올림수다!28)

물론 타자로 인해 내쫓겨진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현실에 맞서 삶을 일구어 나간다는 점은 원작의 주조와 상통한다. 그러나 가문장아기가 여타의 착한 막내딸과 다른 특별한 점은 좋은 ‘딸-아내-며느리’ 등에 그치지 않고 전상신으로서 복덕과 운명을 관장하는 여신이러는 점이다. 그럼에도 연극 <가문장아기>는 여신 ‘가문장아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그 서사성은 한국의 특수·유일한 전상의 여신 신화에서 농경문화의 개척담으로 변환시켰다. 더군다나 본 원전에서 치유와 회복을 꾀하고 있는 갈등관계를 권선징악적 결말로 재편하여 본래의 풍부한 화소와 심오한 주제를 단조롭게 정리하였다. 물론 간단명료한 서사는 전달에 있어 효율성이 뛰어나며 고진감래형의 영웅서사에도 교훈적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삼공본풀이>와 전상의 여신인 가문장아기의 신화적 의미를 잃지 않고자 노력한다면 실제 그 신격의 의미도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29)

27) 고순덕 외, 앞의 책, 20면.

28) 위의 책, 49면.

29) “본풀이의 핵심은 부자가 되는 데 있다.(중략) ‘부자’는 고난 극복으로 성취되는 결실로 볼 수 있다. 가문장아기가 이 결실을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먹고 사는 경제 생활을 주관하는 원래의 신격의 의미도 잃지 않을 수 있다.” 고순덕, 앞의 논문, 21면.



### 3.4. ‘선그릇’의 해석 차이

두 작품의 서로 다른 점 또 하나는 누구 덕에 사냐는 부모의 질문에 〈삼공본풀이〉에서 배꼽 아래 ‘선그릇’ 덕으로 산다고 하고, 〈가문장아기〉에서 배꼽 아래 ‘자궁’ 덕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여성 신체의 ‘선그릇’을 ‘자궁’으로 대치시키는 지점에는 인물에 대한 미묘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

“하늘님도 덕이웁다. 지애님(地下)도 덕이웁다. 아바님도 덕이웁다. 어머님도 덕이웁다마는 나 베포롱 알에 선그릇 덕으로 먹고 입고 행우발신(行爲發身) 흘네다.” 30)

선그릇은 배꼽 밑 중앙으로 나타나는 암갈색의 세로선을 일컫는 제주 토착어로 일반적으로는 임신선(Linea nigra)이라고도 한다.<sup>31)</sup> ‘선그릇’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임신이라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지만 임신 경험이 없거나, 임신-출산이 끝난 여성들도 체질에 따라 ‘선그릇’이 희미하게 항상 있기도 한다.<sup>32)</sup>

이렇듯 낯선 단어 ‘선그릇’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이해적 측면이 부족하고, ‘임신선’으로 대신하기에는 직접적으로 임신-출산 가능성과 연계되어 작중의 전달 의미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가문장아기〉의 작자

30) 현용준현승환 역주, 앞의 책, 96면.

31) 임신선이라는 명칭은 임신을 하면 선의 색이 보다 짙어졌다가 출산 후에 색이 옅어지는 연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으로 임신 시 증가되는 여성호르몬이 중 멜라닌 색소를 만들도록 자극하는 호르몬(Melanin Stimulatory Hormone)이 분비되면서 임신선뿐만 아니라 기미·주근깨 등 피부 전반에 어두운 색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32) 또 월경에 의한 호르몬 작용으로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뚜렷이 생길 수 있다. 더욱이 남성의 경우에서도 체질적으로 ‘선그릇’이 나타나기도 하기에 ‘선그릇’의 의미를 임신과 직접적으로 연관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빚을 수 있다. 한편 구비전승 설화의 범주에서 여성의 성기를 가리킬 때 굳이 선그릇과 같은 어휘로 대체하여 사용했을 경우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필자는 있는 그대로의 고유명사인 ‘선그릇’으로 사용한다.

는 이를 자궁과 월경으로 대신하여 의미의 변화를 주었다. 그리하여 ‘뱃또롱 아래’까지는 동일하나 ‘선그뭇 덕’이 ‘자궁 덕’으로 변화되었다.

가문장아기 하늘님, 땅님 아방 어멍님도 덕이우다마는 나 뱃또롱 아래 자궁  
 덕이우다. (월경천을 보이며) 봅서, 나 가랑이 사이에 빨간 꽃이  
 피어수다!<sup>33)</sup>

작자는 먼저 ‘선그뭇’의 의미를 여성의 성기로 수용하고 이를 작품 내에서 변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집필과정에 있어 ‘선그뭇’은 ‘선그뭇-깊은골짜기-도톰한 도랑-자궁’으로의 수정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여체의 생식 능력으로 자궁을, 월경혈의 상징으로 빨간 꽃의 사용하여 상징적 의미를 의도하였다. 이에 가문장아기 캐릭터는 초경을 경험한 여성으로 구체화 되었다. <삼공본풀이>에서도 가문장아기가 성장하여 15세로 등장하기 때문에 초경을 경험할 만한 연령의 사춘기 소녀로 해석하는데 무리는 없다. 그러나 작품의 직접적인 문면에 초경이나 월경, 개짐이나 서답과 같은 관련 어휘는 나타나지 않는다. 작은 마통이와 결연하여 거지 잔치를 하는 결말 부분에 이르기까지도 가문장아기 부부가 자식을 낳았다는 부분은 부연되지 않는다. 가문장아기의 서사에서 임신과 출산의 특별한 언급은 없는 것이다.

‘선그뭇’은 자신 고유의 신체 무너라는 점에서 자기 몸 인식의 개체성과 주체적 태도를 내포한다. 이렇듯 <삼공본풀이>에서는 ‘선그뭇’이라는 단어 하나로 가문장아기의 개체적 특수성을 설명하고, 또 그로써 이 땅의 모든 여성(자랑할 만한 선그뭇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참고로 민간에서는 임신선(배꼽선, 세로금)이 뚜렷이 진한 여자가 잘 산다는 속신이 있어왔다. 마치 손금이나 관상을 자신의 삶과 운명에 연관 지었던 것처럼 신체의 고유한 무너를 가벼이 하지 않고 길조로 여겨 온 것이다.<sup>34)</sup>

이렇듯 ‘선그뭇’이 몸의 고유성, 신체적 특성을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에 비해, ‘자궁’은 여성 신체의 생식력이라는 기능적

33) 고순덕 외, 앞의 책, 23면.

34) 조현철, 『우리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298면.

측면의 의미가 강화된다. 또한 ‘가랑이 사이에 핀 빨간 꽃’ 또한 월경을 가리키는 비유이며 여성의 부분적 신체 특성에 해당된다. 이에 김성희는 작품의 여성주의적 해석에 보다 적극적인 여성주의적 평가<sup>35)</sup>를 덧붙이기도 하였다.<sup>36)</sup>

가문장아기는 이 땅의 가임기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신도 아니며, 신화의 보편적 주제는 여성에게만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삶의 화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의학상식이나 신체기 관명으로 사용되는 ‘자궁’이라는 단어 보다는, 선그릇(배꼽선, 세로금)이 고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심화확장 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탁월한 문학적 표현이 아닐까 한다. ‘선그릇’을 일반화 시키면 복과 덕으로 표현된다. 비슷한 내용의 민담 제목들이 대개 “내복에 산다” 또는 “제 복에 산다”로 불리며, 누구 덕에 사냐고 묻는 아버지의 말에 작중 셋째딸은 “내 덕으로” 혹은 “제 덕으로” 산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때 복과 덕을 요즘말로 바꾸면 운명이나 운수에 가까울 것이다. 시주팔자, 역학, 토정비결 등 수 많은 민간 속신들도 결국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년운-중년운-말년운/부모덕-제덕-자식덕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 중 신체에 대한 운명론적 속신에서 목에서 배꼽까지는 중년운이며, 배꼽아래는 말년운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로 보면 배꼽 밑 선그릇이 화두인 가문장아기의 삶은 초년의 부모덕을 지나

35) “이 극은 자궁이 우주의 중심이며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한다. 이는 가부장적 폭력적인 권위와 억압에 맞서는 여성주체로서의 선언이다.” 김성희, 앞의 책, 608면.

36) 이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으로 작품에서는 월경천으로 숲속 도깨비를 물리치는 장면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작자는 광재우 장군의 부인이 월경 때 사용한 무명천을 전장 의복에 덧대어 줌으로써 신이한 흥의 내력이 생긴 바에 착안하여 장면을 구성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 진도지역에서는 여성들만 참여하는 도깨비굿이 있다. <가문장아기>에서 월경천을 부적 삼아 숲속 도깨비를 처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깨비굿에서는 월경천을 매달아 여성의 생산력과 붉은 색을 무서워하는 역신 도깨비를 내쫓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일부 진도 도깨비굿의 제의적 맥락이 수용되었으나, 작품 전체로 볼 때는 전상신으로서 제의를 받는 신화적 존재였던 가문장아기가, 추수감사제를 올리는 농사꾼으로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전상신 본풀이의 신화적 맥락은 소실되었다.

중년의 제덕으로 사는 운명에 위치한다. 즉 부모의 기초적 양육 이후의 삶은 나의 공덕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가장 주체적인 삶에 해당하며 가문 장아기는 그 시기를 잘 감지한 것이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제주도 무속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희곡작품이 지난 10여 년간 12개국의 축제에 초청되어 꾸준히 공연되어 온 현상을 주목하여 <가문장아기>를 분석하였다. 이에 문학적 연구시각을 견지하여 무속신화의 변용에 따른 작품의 내적의미 변화를 탐색해보고, 결과의 득실에 대해 논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연극<가문장아기>는 자기 몸에 대해 주체적인 태도를 가진 셋째딸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후 마통이를 배필로 만나고, 들은 힘들게 개척한 벼농사에서 대풍년을 이루어내었다는 내용으로 제주도 무속신화 <삼공본풀이>를 색다르게 각색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부모의 안맹상봉개안, 황금발견, 선그릇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문장아기와 부모, 자매, 마통이형제 관계 속에서 갈등 국면이 추가되거나 확장되어, 보다 구체적인 형상화 장면으로 연출되었다. 부모 안맹과 상봉 후 개안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인해서는 서사적 측면이 관계 회복 및 치유의 지점까지 고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황금발견’ 내용을 ‘황금들판’(벼농사의 대풍)으로 변용함에 따라 가문장아기가 가졌던 전상의 여신으로서의 존재성이 오히려 추수감사의 농경의례를 드리는 인간적 면모에 국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선그릇이 자궁으로 대체되면서 오히려 생산력이라는 일부 특성에 한정되고, 이로써 남녀노소를 불문하여 공감할 수 있는 신화 주제의미의 보편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반문해 보았다. 여성과 남성, 아동과 어른 모두 자기 신체의 고유한 특성을 주체적·공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공본풀이>의 신화성을 주목하여 서사를 선택하였다면 이를 충족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강이 필요하다. 본고의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삼공본풀이>와 같은 한국 신화를 재창작하고 세계적으로 소통함에 있어 지향점과 보완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K C I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고순덕 외, 『아시테지 창작회곡선2 가문장아기』, 도서출판 예감, 2010.

### 2. 논문 및 단행본

고순덕, 「이동극에서 제주무속신화의 회귀화 과정 연구 : '가문장아기'의 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MFA)과정: 연극원 연기와 아동청소년극전공, 2004.

권복순, 「<가문장아기>와 <자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배달말』 제51권, 배달말학회, 2012.

김미숙,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 '집'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김소리, 「이동극에서 배우와 관객의 상호작용 연구 : 관객의 능동적 반응을 수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MFA)과정: 연극원 연기와 아동청소년극전공, 2011.

김신정, 「무속신화와 여성의 몸」, 『여성문학연구』 제27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김영숙, 「삼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44권, 한국언어문학회, 2000.

박영선, 「민담 <내 복에 산다>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心性研究』 제25권 2호, 한국분석심리학회, 2010.

신연우, 「여성담당층 관점에서의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심치열, 「제주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주인공의 연속적 서사진행과 그 의미-<삼승할망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59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안효정,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윤교임, 『여성영웅신화연구: 초공본풀이삼공본풀이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인경, 「〈가문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제2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 장영란, 「한국 여성-영웅 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 - ‘딸’의 원형적 이미지 분석과 ‘효’ 이데올로기 비판」, 『한국여성철학』 제9권, 한국여성철학회, 2008.
- 정운채, 「『서동요』의 형성과 그 예언적인 힘의 유래: 「삼공본풀이」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제28권,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 조영주, 「〈삼공본풀이〉를 활용한 이어쓰기 활동의 문학치료적 의의 연구」, 『겨레어문학』 제46집, 겨레어문학회, 2011.
- 현승환, 『「내 복에 산다」系 說話 研究』,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황인덕, 「〈내복에 먹고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제18집,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88.
- 김성희, 『한국연극과 일상의 미학: 김성희 연극평론집』, 연극과인간, 2009.
- 서대석,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4.
- 조현철, 『우리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6.
- 현용준 현승환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제주도 무가』 2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 3. 기타 자료

- <http://www.playbst.com>: 극단 북세통 홈페이지.
- [http://www.playbst.com/default/img/bst\\_annualreport/2011/2011PlayBST\\_annualreport.pdf](http://www.playbst.com/default/img/bst_annualreport/2011/2011PlayBST_annualreport.pdf): 극단 북세통 2011년 연차보고서.
- <http://assitejkorea.org>: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홈페이지.
- <http://www.yonhapnews.co.kr/local/0899000000.html?cid=MYH20080521002100355&from=search>: 연합뉴스 기사.
- [http://www.newsculture.tv/sub\\_read.html?uid=16483](http://www.newsculture.tv/sub_read.html?uid=16483): 뉴스컬처 기사.
- <http://murraybramwell.com/?p=480>: 해외 리뷰.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8168&cid=1627&categoryId=16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장님굿 항목.

## 국문초록

# <가문장아기>를 통해 본 한국 무속신화의 세계적 소통 가능성 고찰

이원영

본 연구는 제주 무속 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연극 <가문장아기>가 지난 10여 년간 12개국의 축제에 초청되어 꾸준히 공연되어 온 현상을 주목하였다. 소통 현상을 살펴본 결과 여성영웅서사구조의 보편성과 한국 문화의 특수성이 관객들에게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무속신화의 변용에 따른 작품의 내적의미 변화를 탐색해보았다. 먼저 <가문장아기>는 셋째딸과 마통이가 힘들게 개척한 벼농사에서 대풍년을 이루어내었다는 내용으로 <삼공본풀이>를 결말을 다르게 각색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부모의 안맹상봉개안, 황금발견, 선그릇의 의미가 상실되었다. 그리고 가문장아기와 부모, 자매, 마통이형제 관계의 갈등이 추가확장되어, 보다 구체적인 형상화 장면으로 연출되었다. 부모 안맹과 상봉 후 개안 부분의 소거로 서사적 측면이 관계 회복 및 치유의 지점까지 다다르지 못하였고, ‘황금발견’ 내용을 ‘황금들판’으로 변용함에 따라 가문장아기의 전상신적 존재성이 오히려 추수감사를 드리는 인간성에 국한되었다. 마지막으로 선그릇이 자궁으로 대체되면서 ‘몸’이 여성의 생산력이라는 일부 특성에 한정되고, 이로써 남녀노소를 불문하여 공감할 수 있는 신화 주제의미의 보편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반문해 보았다.

<삼공본풀이>의 신화성을 주목하여 재창작한다면, 이를 충족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강이 필요하다. 이때 본고의 분석을 통해 한국 신화의 활용과 소통에 필요한 지향점과 보완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삼공본풀이, 가문장아기, 한국 무속신화, 문화콘텐츠, 한류



## Abstract

### A Study on Global Communication Possibility of Korean Shamanic Myths through 〈Gamoonjang〉

Lee, Won-young

This study remarked that the play 〈Gamoonjang〉 which is based on Jeju shamanic myths has continuously been played for 10 years in 12 countries. Looking the phenomenon, universality of woman heroic narrative structure and particularity of Korean culture held the public's interest.

Also, this study shows how inner states of the work are changed depending on transformation of shamanic myths. First, unlike of 〈Samgong-Bonpuri〉, the ending of 〈Gamoonjang〉 is that the third daughter and Matung-yi have a bumper harvest from a crop of rice in a difficult circumstance. In the process, blindness · reunion · eyesight recovery, finding gold, and the mean of Sungumut(Linea nigra) are lost. In addition, as conflict with Gamoonjang, parents, sisters, and Matung-yi's brothers is added and extended, more specific scenes are embodied.

As blindness · reunion · eyesight recovery is eliminated, the narrative side couldn't reach recovery and healing of relationship. Futhermore, because 'Finding gold' is changed into 'Golden field(Rice farming)', existence of 〈Gamoonjang〉 is confined just as humanity giving thanks for the harvest. Finally, replacing Sungumut with uterus set limits to 'Body' as a characteristic of productivity of women, it could diminish universality of myths' thematic meaning, which people of all ages can feel empathy.

If <Samgong-Bonpuri> is remade on the focus of mythic peculiarity, it needs to reinforce towards being able to satisfy and enhance the focus. Through this study, it could be found that intention point and improvement point required Korean myths' utilization and communication.

Key words : Samgong-Bonpuri, Gamoonjang, Korean Shamanic Myths, Cultural Contents , Korean Wave



논문 받은 날 : 2014년 10월 31일  
심사 기간 : 2014년 11월 15일~12월 2일  
심기로 한 날 : 2014년 12월 2일